

올해의 스승상

후보를 찾습니다

상금 1000만 원, 연구실적 평정점 1.5점 부여



2016년도 수상자들

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신념으로 묵묵히 참 스승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찾습니다.

교육부와 조선일보사, 방일영문화재단은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으로 지난 2002년부터 '올해의 스승상'을 제정, 시상해왔습니다.

일선 평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, 현지 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▲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-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혁신 활동에 헌신하신 분 ▲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및 진로교육 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신 분 ▲인성교육, 학교 폭력 예방교육, 특수 및 다문화, 탈북학생 이해 교육에 헌신하신 분 ▲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분 등을 선정해 시상합니다.

국내 최고, 최대 규모의 교육상인 '올해의 스승상'에 사표(師表)로서 존경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수상 대상 : 유치원·초·중·고교(특수 학교 포함)에 재직 중인 평교사 15명 이내
- ◆ 시상 내용 : 상장, 상패, 상금 1000만원, 연구실적 평정점 1.5점
- ◆ 추천 요령 : 홈페이지(<http://teacher.chosun.com>) 참조
- ◆ 추천 방법 : 학교장추천 또는 일반추천 (10인 이상의 동료 교사, 학부모, 동창회 및 지역인사)
- ◆ 추천 마감 : 9월 29일(금)/마감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
- ◆ 수상자 발표 및 시상 : 12월 중 (예정)
- ◆ 문의 :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(02)724-6314
- ◆ 주최 : 교육부, 조선일보, 방일영문화재단